東大寺 所藏 新羅華嚴經寫經과 그 釋讀口訣에 대하여

南豊鉉*

要 約

현재 일본에 전해지는 新羅의 寫經으로 알려진 것은 奈良市 東大寺圖書館에 소장된 華嚴經(권12-권20) 1축과 正倉院에 소장된 華嚴經(권72-권80) 1축뿐이다. 이들은 같은 秩에 들어 있던 것이 나뉘어져 전해진 것이다. 이들은 740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角筆로 여러 종류의 부호와 문자들을 기입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신라 시대의 언어와 석독구결의 實在는 물론 한문의 석독법이 일본에 전파된 과정을 논증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2009년 8월부터 매년 2회씩 조사하여 2012년 8월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조사한 結果物 가운데 借字 (良)/아, 占/뎌, 白/숣, 乃/나이, 叱/ㅅ, 沙/사, 尒/며,금, 吕/로, 毛刀/모도, 自/저 등의 기능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는 이 자료가 8세기의 석독구결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이는 薛聰과도 매우 가까운 시대의 자료여서 설총의 구결이 實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핵심어: 新羅 寫經, 角筆 기입, 석독구결, 설총의 구결, 한문 독법의 전파

* 檀國大 名譽敎授

1. 東大寺 所藏 新羅華嚴經寫經의 發見 經緯

현재 新羅時代의 佛經이 原典 그대로 국내에 전해지는 것은 10 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다. 日本의 奈良時代(8世紀)에 新羅의 佛敎 敎學이 일본에 미친 영향과 빈번했던 교류를 勘案할 때(小林芳規 2006) 日本에도 신라의 寫經이 원전대로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믿어지지만 근래까지도 확인된 것이 없었다. 그러다가 2006년 3월 正倉院 所藏의 華嚴經 卷子本 1軸(卷72 ~ 卷80)이 740년경에 書寫된 新羅寫經이라는 논증이 前奈良國立博物館長인 山本信吉氏(2006)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日本의 大谷大學에 소장된 元曉大師의 『判比量論』에 角筆로 기입된 신라어와 부호들이 있음을 밝힌 小林芳規선생은 이 華嚴經에 新羅語를 기입한 角筆 기록이 있다면 이것이 新羅의 寫經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서울의 誠庵古書博物館長인 趙炳舜선생이 '東大寺에서 紙質이 新羅寫經으로 보이는 經卷을 본 일이 있다'고 한 말을 생각하고 東大寺 圖書館의 자료를 검토하게 되었다.(小林芳規 2008:2) 그리하여 正倉院의 大方廣佛華嚴經과 書誌上 일치하는 大方廣佛華嚴經 1軸(卷12 ~ 卷20)이 있음을 주목하고 조사한 결과 각필로 기입한 梵唄譜, 合符, 口訣字들을 찾아내게 되어 이것이 신라의 사경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東大寺 所藏의 周本華嚴經(新譯 80卷本)은 원본의 약 30% 정도만을 抄略한 것이다. 이것은 正倉院의 華嚴經도 비슷하게 抄略하였고 여러 卷을 한 軸으로 묶은 것도 日本에는 없다는 점에서 正倉院의 華嚴經과 東大寺의 華嚴經은 僚卷, 즉 동일한 秩에 포함되는 經典이 분리되어 소장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華嚴經들은 본래 東大寺에 소장되어 내려오다가 19세기 경에 한 축이 正倉院에 納入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正倉院 所藏本은 19세기말에 모든 正倉院의 經典을 수리할 때 함께 수리하였으므로 각필의 흔적이 지워져 이를 확인하

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正倉院의 規定上 열람하기가 극히 어려워 연구·조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다행히 東大寺 所藏本은 수리된 바가 없고 신라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軸棒에 초서체로 '校了'라고 쓴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이는 이 經을 書寫한 다음 校訂을 마쳤음을 표시한 것이어서 이 경이 처음 제작되었을 때의 것이 원형대로 보존된 것임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 經은 楮紙 37張을 콩풀로 2mm 정도를 겹치게 連接하여 한 축으로 묶은 卷子本이다. 이는 우리가 리움박물관에 소장된 新羅白紙墨書華嚴經(755)이나 初雕大藏經에서 볼 수 있는 경전의 連接形態와 같은 것이다. 題簽은 '大方廣佛花嚴經卷第十二'이라 되어 있는데 이는 後世人이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卷首題는 '大方廣佛花嚴經如來名号品第七卷十二'라 되어 있고 그 아래 小字로 '用紙三十七張'이라 기입하였다. 이는 권12에서 권20까지에 사용된 張數를 말하는 것이다. 1行 18字가 기준이고 간혹 17자나 19자를 기입한 行이 섞여 있다. 行數는 도합 1141行이다.

이 경전의 抄略한 정도를 新羅寫經 硏究 팀에서 각 卷의 字數를 가지고 殘存率을 조사한 결과 70.6%가 생략되고 29.4%가 남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음에는 이 생략을 寫經者가 임의로 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新羅寫經 硏究팀이 검토한 결과 華嚴經의 내용을 이해하고 節略하여 記寫한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다.(김성주 2012) 즉 華嚴經은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읽는 데 지루한 감을 주는데 이 節略本은 이 경전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하여 중복되는 내용을 생략한 것이라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이와 같이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절략하였으므로 角筆의 기입이 많았던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2. 角筆의 調査

이 經典은 1200여 년 전에 기입한 것인데다 卷子本을 많은 사람이 펼쳐 봄으로써 角筆의 흔적이 지워져 判讀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저 小林芳規(2008)에서 처음 발견하고 판독한 각필의 기입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角筆文字; 叱, (良), 旀, 成, ㅢ(是)
角筆符號; 1. 梵唄符 2. 四聲点(圈点) 3. 合符(縱書)
4. 抹消符號: 잘못 記寫한 글자의 오른쪽에 짧은 수평선을 그어 삭제표시를 하였다. 이는 新羅華嚴經寫經 造成記에도 나타난 것이다.

이 경에 기입된 각필은 肉眼으로 판독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특별히 제작한 照明器具인 각필스코프를 비추면 비로소 각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스코프를 좌측 45도 각도에서 비추는 것이 가장 잘 나타난다. 그러나 각필스코프를 비추면 보이다가도 조명각도를 약간만 움직이면 획의 흐름이 없어져 판독이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각필이 기입된 윤곽이 잡히어도 구체적인 글자의 모양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리하여 문맥에 따라 이 위치에서는 어떤 글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각필의 흔적을 추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이 화엄경의 각필을 판독하는 데는 古代韓國語에 대한 안목을 가진 專攻人이 참가하여 함께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연유와 아울러 필자와 오랜 동안 한국의 각필자료를 함께 조사하여 온 인연으로 小林芳規선생님이 필자를 부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당시 華嚴文義要決 연구 팀을 이끌던 鄭在永선생님을 통하여 이 뜻을 전달 받아 함께 참가하여 연구할 수 있는

幸運을 얻게 되었다.

먼저 小林芳規선생님의 주선으로 이 華嚴經 전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尹幸舜 선생님에게 보내어 尹 선생님이 이것을 복사하여 華嚴文義要決 연구원들에게 배포하였고 이것이 角筆記錄을 옮겨 적는 底本이 되어 移記作業을 하기가 수월하게 되었다.

필자가 이 角筆調査에 처음 참여한 것은 2009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이었다. 東大寺 圖書館은 寺刹의 文化行事를 맡아서 시행하기도 하므로 담당 직원의 형편상 언제나 貴重本을 열람하기는 어렵다. 年2回, 1回 3日씩 조사를 하는 것이 관례와 같이 되어 지난 2012년 8월 2일부터 4일까지 총 7회의 조사를 마치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1시부터 다시 시작하여 오후 3시 정도에 도서관에서 마련해 준 차를 마신 다음 4시 30분경에 조사를 마치고 뒷마무리를 하면 오후 5시경에 마치는 日課였다. 각필은 밝은 빛 아래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방안을 어둡게 하고 스코프를 비추어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도서관에서 別室을 사용하도록 마련하여 주었는데 이 방은 6명 정도가 둘러앉을 수 있는 탁자를 하나 놓을 수 있는 넓이였다. 2011년 東大寺의 圖書館과 博物館이 들어가는 새 건물이 준공되어 2012년 2월부터는 이 새 건물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넓은 방을 쓸 수 있으나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6명을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도서관 측의 희망이었다. 이에 小林선생님이 중앙에 앉고 그 右側에 필자가, 그 左側과 前面에 나머지 사람이 둘러앉아 조사를 하였다. 필자는 늘 小林선생님과 함께 하였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순차로 바뀌어 新羅寫經 硏究팀의 모든 연구원이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었다. 角筆字의 조사는 먼저 小林선생님이 字形을 확인하면 필자가 小林선생님의 자리에 옮겨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옮겨와서 확인을 하면 角筆字로 인정하는 手順이었다. 그러나 角筆字의 확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角筆劃의 흐름에 익숙해 진

다음에야 어느 정도 가능해 지는 것이어서 異見들이 나오게 마련이었다. 특히 그 문맥에서 有意的인 기능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角筆字가 확실한 것이라고 믿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小林선생님이 제시한 角筆字 가운데는 아직 확실한 것으로 믿기 어려운 것도 여럿 남아 있다.

3. 角筆로 記入된 글자에 대한 考察

제1차 조사에서부터 제4차 조사까지는 이 經의 처음서부터 1141行 끝까지 차례로 짚어 가면서 각필의 흔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으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였다. 제5차에는 그 동안 각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 갔던 곳을 조사하였다. 제6차에서부터는 小林선생님의 제안으로 각필이 쓰였을 만한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經文 가운데서 처격조사 (良)가 나타난 '尒時…'의 자리와 겸양의 뜻을 나타내는 白자가 나타나는 '…言'의 자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良)는 주로 吐로 쓰인 것이고 '白'은 주석의 형식으로 쓰여 訓으로 읽히는 것이다. 토는 주로 漢字의 右下에 기입하였고 주석은 한자의 우측에 썼으므로 그 쓰인 위치만 가지고도 吐와 주석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예측을 하면서 처음서부터 이들 차자가 쓰인 자리를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위치에 예측했던 角筆字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또한 한문의 '乃至'의 우측에도 빠짐없이 角筆字가 주석으로 쓰인 것을 확인하였으나 아직 그 뜻과 기능을 밝히기가 어려워 보류되어 있는 셈이다.[1] 이러한 확인은 이 경전의 각필은 단순한 메모로서 수의적으로 기입한 것이 아

1) 이 角筆 字를 小林선생님은 '加常'으로 판독하였다.

니라 이 경전을 철저히 공부하기 위하여 처음서부터 끝까지 釋讀을 위한 토와 주석, 그리고 암송을 위한 부호들을 철저하게 기입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 경전의 각필 조사가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단계라는 사실을 일깨운 것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조사된 각필 글자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이밖에 加, 常, 留, 多, 伊 등이 제안되어 있으나 아직 그 기능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이 글에서는 후보로 두고 앞으로 고찰할 대상으로 남겨 두기로 한다.

다음에 그 기능이 확실한 각필자들의 기능에 대하여 검토하여 나가기로 한다.

3.1. (良)

자는 良자의 초서체에서 온 것이다. 이 자형은 일본의 히라카나 ら와 유사하다.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에서는 약체자 ᄀᆞ가 사용되어 이 사경의 차자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런 점에서 는 신라시대에 쓰이던 독특한 자형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차자는 획이 단순하고 사용빈도가 높아 이 사경에 나타나는 구결의 성격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이다. 이 차자에 대하여는 필자가 2011年에 『日・韓訓讀シンポジウム』(麗澤大學言語研究センター)에서 검토한 바 있다. 여기에 그 내용을 다시 소개하여 이 사경의 구결에 대한 이해를 돕기로 한다.

이 寫經의 자가 나타내는 機能은 4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기능에 따라 검토하기로 한다.[2)]

(1) 處格 助詞

a) 於如是諸眾生中ᄀᆞᆷ 為現其身 教化調伏〈155〉 - 〈350〉

譯; 이러한 衆生들 가운데 그 몸을 나타내어 敎化하고 調伏하나이까?

b) 尒時ᄀᆞᆷ 精進慧菩薩 白法慧菩薩言〈868〉 - 〈958〉, 〈1013〉, 〈1036〉, 〈1040〉

譯; 그 때 精進慧菩薩이 法慧菩薩에게 물었다.

c) 諸魔外道無能沮壞. 攝持正法ᄀᆞᆷ 無有窮盡〈879〉

譯; 여러 魔軍과 外道들이 능히 방해하지 못하고, 바른 법을 거두어 지니되 다함이 없으며

d) 善觀諸法, 得實相印ᄀᆞᆷ 了知如來無功用道〈929〉

譯; 모든 법을 잘 관찰하여 실상의 인(印)을 얻으며, 여래의 공용(功用) 없는 도를 분명히 알며

a)는 空間的 位置를 나타내는 것이고 b)는 時間的 位置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b)의 '尒時ᄀᆞᆷ'는 이밖에도 4회나 더 있다. c)는 '攝持正法'을 動名詞句로 해석하고 여기에 처격의 ᄀᆞᆷ를 붙인 것이다. '譯'에서 '바른 법을 거두어 지니되'로 번역하였으나 이것을 '바른 법을 거두어 지님에 있어'나 '바른 법을 거두어 지니매'로 해석하면 동명사구에 처격조사가 붙은 것이 된다.[3] d)도 '得實相印'을 동명사구로 석독하고 처격조사 ᄀᆞᆷ를 현토한 것이다. '譯'에서 '실상의 인(印)을 얻으며'를 '실상의 인(印)을 얻음에 있어'로 해석하면 처격조사 ᄀᆞᆷ의 기능을 찾을 수 있다.

---

2) 이 佛經에서 角筆 ᄀᆞᆷ는 글자의 우측이나 우하측에 붙이는데 이 글에서는 편의상 해당 글자의 뒤에 놓는다. 예문 끝의 〈 〉 속의 數字는 이 寫經의 行의 차례이다. 같은 용례가 더 있으면 그 뒤의 〈 〉에 수자를 넣어 그 行數를 표시한다. '譯'은 東國 譯經院의 飜譯이다. 앞으로의 예문들은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시한다.

3) 이 시대의 動名詞語尾는 향가에서 볼 때 ㄱ(隱)/n이나 ㄹ/l이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에서 처격조사는 'ᄭᅴ/의'나 'ᄀᆡ/아긔'의 형태로 주로 쓰이고 'ᄀᆡ/아'는 단독으로 쓰이는 예가 없고 'ᄀᆡᄉᆞᆺ/앗'의 형태만이 나타난다. 신라시대의 이두에서도 '中/긔'가 쓰이어서 '良/아'가 단독으로 쓰이는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향가에서 '枝良 出古〈제망매가〉', '彌陀刹良 逢乎 吾〈제망매가〉', '吾良 遣知〈도천수관음가〉'와 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향가는 13세기 후반『三國遺事』에 기록된 것이어서 그것이 신라시대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이제 740년대 이전의 석독구결에서 처격조사 '良/아'의 형태를 확인하게 된 것은 중고시대의 한국어를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2) 呼格 助詞

a) 諸 佛子良 苦集聖諦 此娑婆世界中良 或名繫縛 或名滅壞〈52〉
譯; 여러 불자들이여, 고의 집(集)이라는 성제를 이 사바세계에서 혹은 속박이라 하고 혹 망그러짐이라 하고

b) 文殊師利菩薩 問寶首菩薩言 佛子良 一切衆生 等有四大 無我無我所〈160〉-〈1044〉
譯; 文殊師利菩薩이 寶首菩薩에게 물었다. 불자여, 온갖 중생들이 다 같이 四大를 가졌으므로 내[我]도 없고 내 것[我所]도 없거늘

호격조사 '良/아'는 현대어에도 그대로 쓰이는 것이다. 위의 예문에 쓰인 '佛子良'는 譯에서 '불자여(들이여)'와 대응하여 호격의 기능을 잘 보여 준다.

처격과 호격의 경우는 한문의 어순과 한국어의 어순이 일치하므로 釋讀口訣의 특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3) 接續語尾

a) 諸衆生食我肉者 亦得ᄀᆞᆯ阿耨多羅三藐三菩提 獲平等智〈1054〉
譯; 나의 살을 먹은 중생들도 역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고 평등한 지혜를 가지며

b) 此菩薩 …… 為充遍一切世界 故ᄀᆞᆯ 發心, 為度脫一切世界衆生故發心, …… 為悉知一切世界三有淸淨故ᄀᆞᆯ 發心.〈803-805〉
譯; 이 보살이 …… 일체 세계에 가득하려고 발심하며, 일체 세계의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려고 발심하며 …… 일체 세계의 삼유가 청정함을 모두 알려고 발심하며

a)의 접속어미가 쓰인 '得ᄀᆞᆯ'는 '얻어'나 '실어'로 읽을 수 있다. 어순이 VO의 구조이어서 순독구결이라면 '阿耨多羅三藐三菩提'의 뒤에 ᄀᆞᆯ(ᄒᆞ아)를 현토할 것이지만 석독구결이어서 훈독하는 '得'자에 현토한 것이다. 3b)는 ᄀᆞᆯ가 '故'자에 현토되어 의아스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문의 '爲… 故…'의 구문으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문에서는 '爲…'가 원인구를, '故…'가 결과구를 이끄는 것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원인구 뒤에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어미만을 붙여서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원인을 나타내는 '爲'자를 '삼아'로 석독하여 이를 결과구의 첫 글자인 故자의 뒤에 현토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삼아'를 결과구의 첫머리에서 읽으면 이는 한국어의 원인구의 끝에서 읽은 것과 같은 것이 되고 故자는 부독자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접속어미의 'ᄀᆞᆯ/아'는 석독되는 한자에 직접 붙여 한문의 어순이나 문법을 한국어의 어순이나 문법으로 바꾸어 읽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이 사경에 각필로 기입한 토들은 한문을 석독하기 위하여 쓰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訓讀(註釋)

諸法无真實 妄|取ᄀᆞᆯ真 實相 是故諸凡夫 輪迴生死獄〈663〉

譯; 모두 진실하지 않은데 허망하게 진실하다 하나니 그러므로 모든 범부들 나고 죽는 옥(獄)에서 헤매고 있네.

주석을 나타내는 ㅋ는 원문의 取자에 붙인 것인데 取자의 우측에는 注視線이 수직으로 그어져 있다. 이 주시선은 ㅋ가 取자의 주석을 나타내는 吐임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ㅋ/아'는 고대한국어에서 '良'자의 뜻인 '어질다', '어질게 생각하다', '(윗사람의 말을) 합당하다고 생각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譯'에서 '妄取真實相 是故'를 '허망하게 진실하다 하나니 그러므로…'로 번역했으나 이 사경의 현토에 따르면 取를 '생각하다'의 뜻으로 해석하여 '허망하게 진실하다고 생각하나니 그러므로…'가 된다.

이상과 같이 이 經典의 ㅋ는 조사나 어미를 나타내는 訓假字로도 쓰였고 '생각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訓讀字로도 쓰였다. 이는 이 경전을 석독하는 口訣의 일단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이 자료가 이제까지 新羅時代에도 口訣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만 해 왔던 疑懼心을 拂拭시키고 8세기 전반기의 釋讀口訣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큰 것이다. 아울러 薛聰의 釋讀口訣과 아주 가까운 시기의 口訣의 모습을 보여 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2. 占

2012년 8월 2일부터 4일까지의 조사에서 새로 얻은 수확은 '占'자가 토로 쓰인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 사경에서는 '善哉'가 9번 쓰였고 '偉哉'가 1번 쓰였는데 모두 哉자의 뒤에 '占'을 토로 기입하였다. 몇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a) 尒時 文殊師利菩薩 告智首菩薩言 善哉占 佛子 汝今 爲欲多少饒

益.〈235行〉
譯; 이 때 문수사리 보살이 지수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여 당신이 지금 많이 이익케 하고……[4]

b) 善哉ㅁ 仁者 應諦聽.〈371行〉
譯; 거룩하다 당신이여 자세 들으라.

c) 尒時 堅慧菩薩 …… 說頌言 偉哉ㅁ 大光明 勇健無上士.〈686行〉
譯; 그 때 견고혜 보살이 …… 게송으로 말하였다. '거룩하고 크신 광명, 용맹하신 무상사께서……

이밖에 692行, 889行, 1042行 등에도 '善哉'에 ㅁ을 현토한 예가 확인되었다. 이는 한문의 感歎語氣詞 '哉'가 우리말의 'ㅁ'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에서 한문의 '善哉'에 현토한 것은 다음의 2 예가 확인된다.

善ナ ㄱ [哉]ㅕ 佛子ㅣ(훌륭하도다, 불자여)〈화엄2:10〉
善ㅎㅁㄱ [哉]ㅕ 仁者ㅣ(훌륭하시도다, 仁者여)〈화엄9:2〉

여기서 ㅕ는 한문의 '哉'의 뜻에 대응하는 어미를 나타낸 것이다. 'ㅕ/뎌'는 동명사어미 'ㄱ/ㄴ'의 수식을 받는 형태여서 여실법의 의존명사 'ᄃᆞ'와 종결어미 '여'가 결합되어 감탄법을 나타내고 있다. 구결자 ㅕ는 '徐/셔'나 '彼/뎌'의 약체자일 가능성이 있으나 彼자가 차자표기에 사용된 예를 확인하지 못하여 필자는 徐의 약체자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悼二將歌에서 '彼'가 종결어미에 쓰인 예가 있음을 보고 '彼'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5] 근래에 와서야 석독구결의 'ㄱ [哉]ㅕ'가 15세기의 감탄형어미 '-ㄴ뎌'에 대응하는 것을 확

4) 역경원의 번역에서는 '善哉'에 대한 해석을 생략하였다.
5) 悼二將歌의 제5구를 金完鎭(1980)에서는 '職麻又欲望彌阿里刺及彼'로 보았다. 필자는 끝구의 '及彼'를 '미친뎌'로 읽고 '彼/뎌'를 감탄법 종결사로 본다.

인하고 '뎌'로 읽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이 사경의 '善哉'에 각필로 기입된 占는 '뎌'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占의 전통적 한자음은 '졈'이다. Karlgren, 董同龢, 周法高, Pulleyblank등이 추정한 중국의 상고와 중고의 한자음으로도 占의 초성은 파찰음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고시대에는 우리의 전통한자음의 '지'가 '디'로 소급됨을 최근 확인한 바 있다.(南豊鉉 2012: 253-258) 즉 支, 之의 한자음의 두음(頭音)이 삼국시대의 신라에서는 智, 直과 같은 t 음이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보면 占의 한국 상고시대의 한자음은 '뎜'으로 추정할 수 있다. 차자표기법에서 한자의 음절말음은 탈락시키고 사용하는 예가 많으므로 '占'자는 '뎌'음의 표기자로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 이제까지 우리의 차자표기에서 占자가 음가자로 사용된 예는 이것이 처음이지만, 이 차자의 어두음이 t이라는 사실도 중고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小林芳規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일본의 訓点에서도 占자는 平安初期(9세기초)에 잠간 나타나다가 쓰이지 않았는데 中田祝夫 선생은 이 '占'자를 '点'자의 省劃字로 보았다고 하였다. 우리의 고대한자음과 일본의 생획자 설 중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한·일 양국의 고대어의 표기에서 占의 어두음이 t 음인 점은 공통된다.

3.3. 白

'白/숣'은 한문의 '言'자의 훈을 나타내는 데에 비교적 많이 쓰였다. 다음에 그 대표적인 용례를 추려서 검토하기로 한다.

a) 尒時 文殊師利菩薩摩訶薩 告諸菩薩言白 諸佛子…〈48行〉
譯; 그 때에 문수사리 보살 마하살이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b) 十佛刹 微塵數菩薩 所共圍繞 說此頌言白 佛了法如幻 通達无障礙〈105〉

譯; 열 세계 티끌 수 보살들이 함께 둘러싸고 있었으며……이런 게송으로 말하였다. '부처님은 모든 법을 요술로 알아 통달하여 밝히심 장애가 없고……

c) 尒時 文殊師利菩薩 問財首菩薩言白 佛子 一切衆生 非衆生……〈150〉

譯; 문수사리 보살이 재수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일체 중생이 중생이 아니어늘……'

d) 尒時 文殊師利菩薩 問目首菩薩 |言白 如來福田 等一无異……〈178〉[6]

譯; 이 때에 문수사리 보살이 목수 보살에게 물었다. '여래의 복밭은 평등하여……'

e) 尒時 智首菩薩 問文殊師利菩薩言白〈227〉

譯; 그 때 지수 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었다.

'白/숣'으로 훈독되는 言은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말할 때나 부처님에게 말할 때 사용되었다. 한문에서는 이를 告…言, 說…言, 問…言의 형식으로 표현하였는데 역경원의 번역에서는 이를 '말하였다', '물었다'로 해석하여 신라 시대의 스님이 '白/숣'으로 겸양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白/숣'은 자기를 낮추어 상대를 높이는 겸양어로 현대어의 '사뢰다'에 이어진다. a)에서는 문수보살이 여러 보살에게, b)에서는 문수보살과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에게, c)에서는 문수보살이 재수보살에게, d)에서는 문수보살이 목수보살에게, e)에서는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겸양하여 사뢴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白자를 현토한 것이다. 다만 d)에서는 언(言)자의 좌측에 주시선을 그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수의적이다.

6) 言자의 우측에 注視符가 있음.

이 '白/숣'은 신라시대에 보살들이 부처님에게는 물론, 보살들에게도 상호간에도 겸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15세기의 불경언해에서는 言자의 해석을 윗사람에 대하여 겸양할 때는 '숣-'으로, 겸양표현이 아닐 때는 '니ᄅᆞ-'로 하고 있다.

a) 그ᄢᅴ 舍利弗이 다시 부텻긔 <u>ᄉᆞᆯ오ᄃᆡ</u>; 爾時 舍利弗이 重白佛言ᄒᆞᄉᆞ오ᄃᆡ〈법화1:168-169〉
b) 그ᄢᅴ 諸天子ㅣ …… 偈ᄅᆞᆯ <u>ᄉᆞᆯ오ᄃᆡ</u>; 爾時 諸天子ㅣ…… 而說偈言ᄒᆞᄉᆞ오ᄃᆡ〈법화2:47〉
c) 그제 諸子ᄃᆞᆯ히 各各 아비ᄃᆞ려 <u>닐오ᄃᆡ</u>; 時諸子等이 各白父言호ᄃᆡ〈법화2:70〉

3.4. 乃

앞에서 보살들이 서로 말하거나 부처님에게 말하는 것은 '白/숣'으로 겸양하는 것을 보아 왔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하는 것은 '乃/나이'라고 함이 2 예가 확인되었다.

a) 諸佛之所說ㅣ 乃 譬如淨明鏡〈161〉
譯; 이것은 부처님이 하신 말이다. 비유컨댄 깨끗하고 밝은 거울이……
b) 佛子 如來所悟 唯是一法 云何乃<u>說</u>乃 無量諸法 現无量刹〈167〉
譯; 불자여, 여래가 깨달은 것은 오직 한 가지 법이온데 어찌하여 한량없는 법을 말하며 한량없는 세계를 나타내며……

a)에서는 說자에 주시부를 긋고 그 훈을 '乃/나이'로 표시하였다. b)에서도 한문의 說자에 '乃/나이'로 그 훈을 표시한 것이다. 이 說자들은 부처님이 '말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하는 것을 '乃/나이'로 표현하는 예는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에서 확인된다.

c) 佛 [言]乃ニ尸 善男子ㅣ ……〈금광2:21〉
d) 佛ㄱ 言ㄐニ尸 善男子ㅣ ……〈금광4:19〉〈금광4:25〉〈금광14:25〉〈15:14〉
e) 世尊ㄱ 而ㅁ 呪乙 說ㅣ 曰ㄐニ尸〈금광9:2〉

고려시대 석독구결에서 부처님이 '말하다'를 '乃/나이'로 표현한 예는 〈금광〉에만 나타나는데 비교적 많이 쓰인 편이다. c)의 [言]乃ニ尸은 〈금광〉의 〈2:25〉, 〈3:5〉, 〈3:16〉, 〈3:22〉, 〈5:8〉, 〈13:21〉등에도 나타난다. d)의 言ㄐニ尸은 c)와 동일한 석독인데 '乃ニ尸'을 '나시ㅍ'이 아니라 '나이시ㅍ'로 읽어야 함을 보여 준다. e)는 이 '乃ニ尸/나이시ㅍ'이 曰자에도 쓰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부처님이 말하는 것'을 '乃/나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시대부터 13세기까지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신라화엄경에서 說자가 부처님의 말씀일 경우에 '乃/나이'로 표현한 것은 2 예가 확인되었지만 앞으로 더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

3.5. 叱

'叱/ㅅ'의 용례도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기능별로 분류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a) 於河海叱中ㅋ 從定出〈497〉
譯; 바다 속에 정으로 조차 나오며
b) 甘露妙定如天叱鼓 恒出降魔寂靜音〈544〉
譯; 감로의 묘한 선정 하늘 북 같아 고요한 降魔 음성 항상 내

어서

a)는 무정물체언인 河海의 속격을 나타내고 b)도 무정물체언인 天의 속격을 나타낸다. 이는 고려시대의 석독구결과 중세국어에도 이어지는 문법이다.

c) 尒時 世尊 從兩足輪下叱 放百億光明〈69〉
譯; 그 때 세종께서 두 발바닥으로 백억 광명을 놓아서
d) 此中何法名爲梵行 梵行從叱何處來 誰之所有〈742〉
譯; 이 가운데 어느 법이 범행이냐, 범행은 어디서 왔으며 누구의 소유며

c)와 d)의 '叱/ㅅ'은 從자가 석독될 때 그 훈의 말음을 첨기한 것이다. 즉 '從叱'을 '좃'으로 읽은 것이다. 현대어로는 '…로부터'로 해석된다. c)는 從자로 유도되는 구의 끝에 현토한 것이고 d)는 從자로 유도되는 구에서 從자에 직접 현토한 것이다.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에서 보면 c)는 점토석독구결의 현토 방법이고 d)는 자토석독구결의 현토방법이다.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에서도 '何ㄱ 處乙 從七 來ㄴ가〈화소8:6〉' 등 '從七/좃'의 용례가 자주 보인다.

e) 顯示无邊種種叱 境界〈170〉
譯; 끝없는 여러 가지 경계를 나타내어

e)의 '叱/ㅅ'은 種種의 훈 '갓갓'의 말음을 첨기한 것이다.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에서는 '種七種七'으로 앞뒤의 種자에 모두 七을 첨기하였으나 이 사경에서는 뒤의 種자에만 첨기한 예가 확인된다.

f) 若佛是梵行者 爲色是佛邪……想是叱佛邪 行是叱佛邪 識是佛邪……若法是梵行者 爲寂滅是叱法邪 …… 不起是叱法邪 不可說是叱法邪……如是觀已……〈726-739〉

譯; 만일 부처님이 범행이라면 色蘊이 부처냐 …… 상온이 부처냐 행온이 부처냐 식온이 부처냐……. 만일 교법이 범행이라면, 적멸이 법이냐 …… 일어나지 않음이 법이냐 말할 수 없음이 법이냐……이렇게 관찰하면……

여기에 쓰인 원문의 是자는 모두 계사이어서 '-이다'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是자에 '叱/ㅅ'을 현토한 것은 이를 '잇'으로 읽음을 보인 것이다. 우리는 15세기의 언해에서 계사 是자를 대명사 '이'로 해석함을 볼 수 있다.

誰是長年者/ 뉘 의 나ᄒᆞᆯ 기리 살 사람고.〈두언6:1b-2a〉
迹是雕墻後/ 자최ᄂᆞᆫ 의 다매 그림 그린 後ㅣ로다.〈두언6:2b-3a〉

이 언해의 '이'는 계사를 대명사로 해석한 것이어서 직역하면 문맥이 어색해지지만 한문의 계사를 대명사로 해석하는 관습이 있어 왔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의 신라 화엄경에서는 이 계사를 대명사로 해석하고 또 '叱/ㅅ'을 첨기하였다. 여러 예를 통하여 이 '叱/ㅅ'의 사용을 보여 주지만 그 기능은 미상이다. 속격의 '叱/ㅅ'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강조의 기능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 사경에 처음 나타나는 것이어서 앞으로 더 많은 예를 찾아서 고구해 보아야 할 문법이다.

3.6. 沙

沙자는 후대의 구결에선 약체자 ᄉᆞ가 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정자를 행서체로 썼다.

a) 佛子 如來所悟 唯是一法 云何 乃沙說無量諸法 現无量刹……〈167〉
譯; 불자여, 여래가 깨달은 것은 오직 한 가지 법이온데 어찌하여 한량없는 법을 말하며 한량없는 세계를 나타내며(나타내나이까)……

b) 令彼衆生……以見佛故 具受衆樂 乃至入於无餘涅槃 汝乃沙當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1077〉
譯; 저 중생들로 하여금……부처님을 뵈온 연고로 여러 가지 낙을 받으며, 내지 무여열반에 들게 하고야, 네가 마땅히 아누다라삼약삼보리를 얻으리니……

이 '沙/사'는 원문의 乃자에 대한 훈으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沙/사'는 '이에 곧' 또는 '즉' 정도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하면 문맥에 어울리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는 '沙/사'가 부사로 쓰인 것임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光州千字文』이나 『石峰千字文』에서 乃자를 '사 내'라고 읽은 것도 이와 같이 부사로 읽은 것이 아닌가 한다.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에서는 '乃至'를 '乃ᄂᆞᆺ 至ㅣ'로 석독한 예가 여럿 나타난다.

3.7. 吕

吕자는 옥편에 以자의 古字 또는 本字라고 하였다. 이 사경에서는 다음의 3 예가 확인되었다.

a) 時天帝釋 在妙勝殿前 遙見佛來 以神力㠯 莊嚴此殿〈601〉
譯; 때에 제석이 묘승전 앞에서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멀리서 보고 즉시 신통의 힘으로 이 궁전을 장엄하고
b) 其座 悉以妙寶㠯 所成〈602〉
譯; 그 사자좌들은 묘한 보배로 이루었으니
c) 菩薩摩訶薩 修梵行時 應以十法㠯 而爲所緣 作意觀察〈712〉
譯; 보살마하살이 범행을 닦을 때에는 마땅히 열 가지 법으로 반연을 삼고 뜻을 내어 관찰하여야 하나니

㠯는 以자가 이끄는 구의 끝에 붙어서 '-로'로 읽히고 있다. 以자가 차자표기법에서 '로'의 표기에 사용되는 것은 중고어의 이두문에 이미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이 시대에 한문의 以를 '로'로 읽었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화엄경의 구결에서 그 실례를 보여 주고 있다. 다만 이체자인 㠯를 사용함으로써 원문의 '以'와 구별한 것은 원문과 구결에서 같은 글자를 쓰면 구별이 안 되는 점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3.8. 尒

尒는 彌자의 약체자이다. 즉 彌자의 이체자 旀에서 뒷부분을 딴 것이다. 彌의 중고시대 음은 '며'여서 이 차자가 접속어미 '며'를 표기하는 예가 신라시대의 이두에 이미 나타난다. 그 훈은 '금'인데 신라시대 이두에서는 약체자 尒을 사용한 예가 여럿 나타난다. 이 화엄경의 구결에서는 尒자가 쓰였는데 음가자로도 쓰고 훈가자로도 사용되었다.

a) 若身是梵行 當知梵行 則爲非善 則爲非法……則爲不淨尒 則爲可猒…… 則爲蟲聚〈716〉
譯; 만일 몸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선하지 않은 것이며 법답지 않은 것이며……부정한 것이며 싫은 것이며……벌레무더기인

줄을 알 것이니라.

여기서는 ホ자가 음가자로 쓰여 접속어미 '며'의 표기에 쓰인 것이다.

b) 是時 十方各過十佛刹 微塵數世界外 有萬佛刹 微塵數佛ホ 同名法慧〈806〉
譯; 이 때 시방으로 각각 열 부처님 세계의 티끌 수 세계 밖에, 1만 부처님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이 계시니, 명호가 같아서 모두 법혜 부처님이라

여기서 '有萬佛刹 微塵數佛ホ'는 '1만 부처님 세계에 티끌 수 부처님씩 계시니'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ホ은 보조사 '씩'의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라의 이두에서도 '經心內中 一 收 舍利ホ 入內如/경심 안에 일 수 사리씩 넣었다〈신라화엄사경조성기, 755〉'와 같이 ホ이 보조사로 쓰인 예가 여럿 있다.

c) 佛子 有十種法 令諸菩薩所行淸淨 何等爲十 一者 悉捨資財ホ 滿衆生意〈899〉
譯; 불자여, 열 가지 법이 있어 보살들로 하여금 행하는 일이 청정케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재물을 희사하여 중생의 뜻을 만족케 함이요,

여기서의 '悉捨資財ホ'는 '재물을 다 희사하여 가지고'로 해석된다. 이 ホ은 행동의 전제를 나타내는 접속어미에 수단의 뜻이 가해진 '-良ホ/아금'에서 '良/아'의 표기가 생략된 것이다. 고려시대의 이두에서는 '良ホ'이 주로 쓰이고 석독구결에서는 '-ヨホ'이 쓰이지만 신라시대의 이두에서는 ホ만으로 쓰인 예들이 발견된다. '楮根中 香水 散ホ 生長令只旀/닥나무 뿌리에 향수를 뿌리어서 생장시키며〈신라화엄경사경〉'에서 散

ホ은 '빟어금'으로 읽히는데 직역하면 '뿌리어 가지고'가 된다.

이상과 같이 이 화엄경의 ホ은 같은 차자가 3 가지의 기능을 보여 주는데 이는 이 시대의 이두와 같은 맥락을 보여 주는 것이다.

3.9. 毛刀

毛刀는 '모도'로 읽히는 것으로 聚자의 훈을 나타내는 데 쓰였다.

a) 當知 梵行 則爲非善 則爲非法…… 則爲蟲聚毛刀〈717〉
譯; 3.8.a) 참조.

이 문맥의 '蟲聚'에서 聚의 뜻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譯에서 '벌레 무더기'라 하였는데 이 '무더기'를 이 사경의 구결에서 '毛刀/모도'라고 하였다. 이 '毛刀/모도'의 구성은 '몯 + 오'로 분석되는데 '몯'은 동사어간이고 '오'가 명사파생의 접미사로 보인다. 명사파생 접미사 '-오'는 후대의 자료에서는 찾기가 힘들지만 『삼국유사』의 慕竹旨郎歌의 작자 '得烏'가 연상된다. 삼국유사에서의 '孝昭王代 竹旨郎' 조에 '得烏 一云谷'이라 있는데 뒤에 가서는 '得烏谷'이라고도 나온다. 이 '得烏谷'을 梁柱東(1965:72)에서는 '得(谷)烏'로 보고 '실오'를 그 이름으로 보았다. 이 '烏/오'에 대하여 '烏는 羅人 男女名에 쓰이는 添尾語'라고 하였다. 즉 접미사로 본 것이다. 이 '烏/오'를 인명의 접미사로 한정하지 않고 명사파생 접미사로 보면 '毛刀'가 '무더기'의 뜻으로 쓰인 것도 이해가 된다.

3.10. 自

이 自는 주해의 성격으로 쓰인 것이다.

a) 洗浴身自體 當願衆生 身心无垢〈348〉
譯; 목욕을 할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몸과 마음에 때가 없고

여기서 自는 '身體'의 身자와 體자의 중간 위치에 기입되어 있다. 이는 身體가 '남의 신체가 아닌 자기의 신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기입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身體의 훈이 아니라 주석으로 쓰인 것이다. 自는 '저'로 읽을 수 있는데 속격과 만나면 '저의(〉제)'가 된다. 여기서는 이 속격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4. 結 語

日本 奈良市의 東大寺圖書館 所藏의 新羅華嚴經寫經(권12-권20)에 각필로 기입된 글자들은 한문의 석독을 나타내는 吐와 註釋을 보여주는 것으로, 全卷에 걸쳐 매우 치밀하게 기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740년대 이전의 釋讀口訣의 實物을 보여 주는 것으로 薛聰의 시대와 불과 2, 30년의 時差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전설로만 생각되었던 薛聰의 釋讀口訣과 동일한 漢文 釋讀法이 이미 이 시대에 보급되어 있었음을 실증하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자료는 고대한국어 자료가 빈약한 우리에게 더할 수 없이 중요한 내용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일본의 經典訓讀의 發達이 8세기말에 시작된 것으로 보면 그보다 50년 이상 앞서는 시기에 기록된 우리의 석독구결이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釋讀口訣이 發生·發達하여 간 자취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이어서 文化史的으로도 매우 중요한 意義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2009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年 2회, 매회 3일씩 7차에

걸쳐 조사한 각필 글자들의 기능과 의미를 밝히고자 하여 쓰여진 것이다. 각 글자들의 기능과 의미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良)/아; 처격조사, 호격조사, 접속어미, 동사 '良/아'를 나타내는 훈독자.
2) 古/뎌; 한문의 감탄어기사 '哉'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文章 終結辭 '-ㄴ뎌'.
3) 白/숣; 부처에 대하여 또는 보살 상호간에 겸양을 나타내는 "말하다 類의 동사 '숣"'. 현대어의 '사뢰다'에 이어지는 동사.
4) 乃/나이; 부처와 같은 尊者가 보살이나 대중에게 '說함'을 나타내는 말하다類의 동사.
5) 叱/ㅅ; 무정물 체언의 속격조사, '從叱/좃, 種種/갓갓'의 말음첨기. 계사로 발달한 대명사 '是/이'에 이어지는 속격조사로 보이나 후대의 문법으로는 이해 되지 않는다.
6) 沙/사; 한문의 접속사 乃의 훈을 나타내는 부사. '이제 곧'이나 '즉'의 뜻을 나타냄.
7) 吕/로; '以'자의 古字로 한문의 '以'의 훈 '(으)로'를 나타내는 조격조사.
8) /며, 금; 彌자의 속자 旀의 뒷부분을 딴 省劃字로 접속어미 '-며', '개별'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금(씩)', 접속어미 '-아금' 등 3 가지의 동음이의어를 나타내는 데 쓰였음.
9) 毛刀/모도; 동사 '몯'과 접미사 '오'가 결합되어 파생된 명사. '무더기'의 뜻.
10) 自/저의(제); '자기'를 뜻하는 '저'를 나타내는 대명사. 문맥의 뜻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주석으로 쓰였음.

이밖에 그 기능을 설명하기 어려운 글자들이 있으나 이들은 앞으로 좀더 확실하고 많은 예를 확인하여 연구하여야 할 과제로 남는다. 이 글에서는 梵唄符, 合符 등 여러 부호들에 대한 기술은 생략하였다.

끝으로 이 자료를 발굴하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각필 判讀에 임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小林芳規 선생님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중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東大寺 圖書館의 관계자 여러분과 특히 坂東俊彦(반도 토시히코)씨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여 마지않는다.

參考文獻

金星周(2012),「東大寺『花嚴經』卷第12-20의 節略 樣相」,『書誌學報』39, 韓國書誌學會.

金完鎭(1980),『鄕歌解讀法硏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南豊鉉(2011),「韓國の借字表記法の發達と日本の訓点の起源について(韓國의 借字表記法의 發達과 日本의 訓点의 起源에 대하여)」,『日・韓訓讀シンポジウム 開催報告書』, (麗澤大學 言語硏究センター).

南豊鉉(2012),「古代韓國語의 如實法 動詞 '支/디'와 '多支/다디'에 대하여」,『口訣硏究』29, 口訣學會.

梁柱東(1965),『增訂 古歌硏究』, 一潮閣

周法高主編(1974),『漢字古今音彙』, 香港中文大學出版社.

山本信吉(2006),「聖語藏『大方廣仏華嚴經 自卷七十二 至卷八十』の書誌的考察」, 正倉院紀要 第28号。

小林芳規(2006),「日本訓点의 一 源流」,『口訣硏究』17, 口訣學會.

小林芳規(2008),「角筆による新羅語加点の華嚴經」,『南都佛教』91, 南都佛教硏究會 東大寺.

小林芳規((2010),「日本のオコト点の起源と古代韓國語の点吐との關係」,『口訣硏究』25, 口訣學會.

Edwin. G. Pulleyblank(1991), Lexicon of Reconstructed *Pronungciation in Early Middle Chinese, Late Middle Chinese and Early*

Mandarin, UBC Press, Vancouver.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09-3 양지원빌딩 5층
E-mail: namph1935@naver.com
접수일자: 2013. 01. 10.
심사일자: 2013. 01. 13.
게재결정: 2013. 02. 07.

東大寺所蔵新羅華厳経寫経とその釈讀釋讀口訣について

南豊鉉

日本内に現存する新羅の寫經として知られているのは奈良市東大寺圖書館に所蔵されている華嚴經(卷12-卷20)の1軸と正倉院に所蔵されている華嚴經(卷72-卷80)の1軸だけである。これらは１つの秩に入っていたものが分けられたものである。此のお経は740年以前に作られたものと推定されるが、角筆で記入された種種の符号や文字が確認された。この符号や文字などは新羅のことば、釈讀口訣の実在についてはもとより、漢文の釈讀法が日本に伝播された過程の論証においても重要な資料と思われる。本稿は東大寺圖書館所蔵の華嚴經を2009年8月から2012年8月まで計7回にわたって調査した結果のうち借字(良)/a, 占/tiŏ, 白/sʌrp, 乃/nai, 叱/s, 沙/sa /miŏ,kŭm, 吕/lo, 毛刀/moto, 自/čŏなどの用例と意味・機能を考察したのてある。これによってこの資料が8世紀の釈讀口訣を反映している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これは薛聰の時代と非常に近い時代の資料であり、薛聰の口訣が實存したことを傍証するものだ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 新羅寫經, 角筆記入, 釈讀口訣, 薛聰の口訣, 漢文訓讀伝播